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대련합부대의 장병들은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안고 온몸을 불태우시며 우리 국가를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에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다 모르는 미증유의 힘을 지니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상징하는 강위력한 타격군종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백두령장들의 거룩한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사령부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하고있는 판도포위사격방안에 대한 김락겸대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도포위사격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휘성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에서 판도포위사격방안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작성한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위력시위사격준비상태를 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도포위사격 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포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련합부대에 와서 화성포병들의 전투준비태세와 사기충천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제의 군사적대결망동은 제손으로 제목에 울가미를 거는셈이 되고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루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대책없는 객기를 부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주변에

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세계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계획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력사적순간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천에 돌입할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계속하여 군사강습소,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군사강습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여 대련합부대안의 전체 화성포병들을 현대군사과학기술과 적들의 변화된 전쟁수행방식, 그에 대처한 우리 식의 전법에 완전무결하게 정통한 두뇌전의 능수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식당을

비롯한 대련합부대 지휘부안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 출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당의 핵무장력의 중추력량으로서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 화성포병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련합부대 당위원회에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당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전략군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 유일적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보검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체 전략군 장병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싸움준비완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김정은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무적의 발사대마다에 성스러운 붉은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본토의 타격대상물들을 섬멸적인 초강력타격으로 초도화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기자



지금 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쏠리고 있다.

비대한 몸통이를 흔들며 힘이 약한 나라, 핵이 없는 나라들을 끌라기며 통략하는 미국식취세에 굴종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강권에 놀러워 체면도 신의도 다 웨버리고 《제재결의》에 손을 들었던 나라들도 술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 보고 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인 유엔 《제재결의》를 단죄규탄하고 전면배격한 공화국정부성명회 세계가 보지 못한 《화평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라고 내뱉은 트럼프의 호전말발에 판도에 대한 포위사격선언으로 대담한 조선이 세계의 관심속에 있다.

특히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이 구체적인 사거리와 비행시간, 탄착점까지 공개하며 판도포위사격방안을 최종완성하여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령관등지게 보고드리고 발사대기상태에서 명령을 기다리겠다는 경고선호를 올린 조선이다.

이러한 준엄한 정세속에서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셨다. 그이께서는 전략군이 준비하고있는 판도포위사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매우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게 작성한대하여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미래의 군사적대결당동은 제순으로 제목에 올라가미를 거는셈이 되고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루는 고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달란 시간을 보내고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협한 군사적행동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질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미국은 우리에 대한 우만무제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견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견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재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협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러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세계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후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며 오만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목줄을 틀어쥐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멸망의 무덤속에 들어가겠는가 두길중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은 행성의 절대병기인 수소탄과 원자탄은 물론 그것을 미국분도까지 날릴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핵강국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 미국도 가슴아프게 인정하고있다. 세 세계를 저들의 령지처럼 여기며 저들앞에 공심거리지 않으면 힘자랑을 서슴지 않는 미국이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공갈할기때문에 공화국이 자위의 핵을 보유했다는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기마련인 자연계의 법칙처럼 미국의 핵위협도수가 높아질수록 공화국의 핵억제력이 질량적으로 강화되는것도 역시 부인할수 없는 법칙이다.

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을 공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미국분도에 핵타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이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려 한다면 미국분도도 무사치 못하다것이 기정사실로 되고있다.

물론 지난시기 핵이 없고 힘이 약한 나라들이 미국의 핵동등이앞에 무릎을 꿇고 치욕을 당했으며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루추하게 놀아냈다. 그러나 조선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공화국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면만화의 지략을 지니고계시는 회세의 천출명장을 모시고있는 나라이다. 1950년대에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고 력사적으로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해온 전통이 있으며 아직 세계가 다 알지 못하는 무진막

강한 핵억제력을 가지고있는 강대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이다. 인민군대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결심하시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수 있게 만단의 발사태를 갖추고있다.

미국이 이 엄연한 현실을 가려보지 못하고 경계망동한다면 저들의 목에 서슬푸른 비수가 떨어박히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결과를 맞보게 될것이다.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쥐시고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본사기자 고성 호



일심단결과 핵무기의 위력으로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주체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단살하기 위하여 불분무법의 유엔 《제재결의》를 조각해내고 전쟁쟁기를 부리고있는 미제에 대한 분노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폭발시키며 정면이 조국결사수호의 선전에 총결기해나서고있다. 공화국정부성명회 발표된 3일동안에 전국적으로 347만 5 000여명에 달하는 각계층 사람들이 인민군대 인태와 복귀를 탄원하였다.

이것은 자기가 나서 자란 이 땅, 자기 삶과 행복의 전부인 이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그들의 강용한 기상과 불타는 애국심의 분출이다.

정의의 애국의지가 하나가 되어 자기의 조국, 자기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위업에 한사람같이 용약 떨쳐나선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자랑찬 시위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합모습이 있고 불개의 힘의 원천이 있고,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령도자의 뜻과 구상을 충성으로 받드는 마음이 온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화국의 단결이아말로 참으로 공고하고 진실한것이다.

이런위력을 한성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한치의 드르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빛나게 계승하여 이 땅우에 기

어이 인민의 락업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얼마전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견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리상이라고 하시면서 온 사회가 단합되고 인민들도 두가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되던 터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리상과 결심은 곧 실천으로 되고있다. 자그마한 고구려당에서 오르고 넘어가며 해를 지켰고 적의 총구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최전선 초소까지 나가서서 원수격멸의 의지와 백승의 힘을 안겨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같이 포연질은 발사하면서 신변의 위험마저 아랑곳없이 전략무기개발의 전과정을 진두지휘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가 있어 《3.18 혁명》과 《7.4혁명》을 거쳐 대륙간탄도로켓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7월 28일의 기적적승리가 이루어질수 있었다. 그 길에서 한걸음만 물러서면 원수들이 백결을 천결을 팔러들고 인민의 행복을 지킬수 없었어. 그이께서는 힘들이고, 세상이 다 몰라준대 해도 자신의 언덕을 헤쳐넘으시고 또 넘어가시는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은둔과 정과 열을 강그리 기울여

불패의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도 승리의 소식을 인민들에게 한시바빠 알려주고싶으시여 곁쌍인 피로를 미처 무시없이 남모르는 머나먼 강행군길을 달리고달리시는 원수님이시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있고 하시는 백가지, 천가지 일이 모두 인민을 위한것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어서는 그들이 리용할 모포의 두께도, 물의 온도도 가늠해보시고 부도없는 아이들을 위해 궁전같은 옥아원과 애육원을 찾아주시고 친히 현지를 찾으시어 원아들을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유친의 정을 부여주시었다. 또 새 집에 입사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시어서는 사랑의 촉매잔도 부여주시며 친어버이사랑과 정을 배부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몇해전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시어 당에서 류경치과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치과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문명을 누리게 하자는대 있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인민을 위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시려 사색과 현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는것이다. 그러시고도 인민을 위한 훌륭한 건축물이 일떠설 때

천만의 신념과 의지

그 어떤 봉해도 압력도 우리가 놀래지 못하리

지금 이 노래는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해 가로막을 치는것을 노린 천대미문의 악략타락하는 천하제일의 명장이다. 경에하는 원수님만이 기어만 반드시 이긴다는것이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은 드물지않은 신념이다. 하기에 미국의 최후경전에 떨쳐나선 공화국

를 갖추고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취격멸의 의지로 가슴불태우며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받이 국도에 달하고있는 이 시 각 공화국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야말 천만군민의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는 노래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이다.

그 어떤 봉해도 압력도 우리가 놀래지 못하리

우린 빈말 안한다 우린 빈말 안한다

의 천만군민이 틀어쥔 총대는 그대로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로 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이 천만의 총폭탄 대오를 미국이 과연 당해낼수 있겠는가.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경에하는 원수님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있다.

이 일심단결을 이길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공화국에는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시킬수 있는 무적강군이 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공격과 방어를 다 갖춘 강군이 바로 조선인민군이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백두산의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헌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무적강군으로 준비되어있다.

한다면 하고 하면 반드시 이기는것이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다. 만약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매여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것으로 될 것이다.

노래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는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반미대결의 최후승리에로 질풍노도쳐 나가는 천만군민의 진군속에 승리의 군가마저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조국해방의 환희를 전민족적인 최후승리의 환희로 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매진하자

김 춘 순

이 나라 삼천리강토가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의 드높은 함성으로 차넘치던 력사의 8.15.

얼마나 고대하던 해방의 날이었는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 만고공상을 헤치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영웅적인 민족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영원불멸의 대업적이다.

미국은 민족분렬의 장본인,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

미국도서 《일본일기》에는 미국은 일본이 한것보다 훨씬 더 조선에 해를 끼친것으로 될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조선의 피를 짜내고 그것을 일본경제의 부속물로 만들어놓았지만 그레도 조선은 하나의 조선으로 있었기때문이다, 일본이 망하였을 때 조선은 하나였으니 독립국가로 될수 있었지만 미국무력이 진입하여 한 강토를 인위적으로 분렬시켰기때문이라고 씌여져있다.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미국은 수천년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고 살아온 우리 겨레를 둘로 갈라놓은 민족분렬의 장본인이며 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물이다.

삼천리강산을 진감시키던 조국해방의 만세소리와 함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던 우리 겨레의 소박한 꿈과 지향은 날강도 미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침략과 약탈의 원흉인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아시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 세계제패를 위한 군사적발판에 불과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이 없었더라면 애당초 분렬의 38° 선도, 원한의 군사분계선도 없었을것이며 조선의 통일문제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단일민족사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70여년간이나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한 미국의 죄악은 백년천년세월이 흐르다 해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8.15해방후 미국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북과 남 온 겨레의 투쟁을 악랄하게 가로막았으며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을 부추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림속에서 풍찬로숙하시며 그려보신 것은 통성변영하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조선이었다.

력사적인 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하늘끝에 닿던 그때 어느 누구도 외세에 의해 우리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비극은 온 겨레에게 조국해방의 환희를 자주통일의 환희로 이어나가기 위해 결사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불을 질렀다. 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한 재난과 고통은 또 얼마였는가.

1960년대에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5.16군사쿠테타를 조작하여 찬물을 끼얹은것도, 1970년대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열기가 차던때에 남조선당국을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로 사추한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발표되고 1990년대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되어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자 북침전쟁책동과 반공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근본열쇠

목적많은 북남관계와 장구한 조국통일운동사는 외세의존과 사대를 배격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여야 온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대업을 이룩할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

미국은 더이상 화해와 단합, 평화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투쟁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한줌도 못되는 친미주구들을 내몰아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를 뛰

화국핵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발표이후 북남관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당황망조한 미국은 친미보수 《정권》을 조작하여 자주통일시대의 거센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에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켜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어온것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된 사실이다.

이 행성의 곳곳에서 미국에 의해 류혈과 분쟁, 억압과 피난의 파도가 휩쓸고있는 나라들의 실태가 아무리 눈물겹다고 해도 수수천년 한강토에서 의종계 살아온 단일민족이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둘로 갈라져 반세기이상 겪어온 그 고통에는 결코 비길수 없을것이다.

력사적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민족분렬의 원흉이고 조국통일의 훼방꾼이며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여넘어 전민족적범위에서 대단결을 이룩하며 그것을 부단히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모든것을 우리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백사천사를 우리 민족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통일대진군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외세에게 빌붙는 길은 민족반역의 무덤행이며 동족과 손잡고나가는 길은 애국애족의 활로이다.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조선사람이 죽을것이라는 폭언을 거리낌없이 체치는 악한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미국놈들이다.

온 겨레는 이러한 미국의 흉악무도한 실체를 똑바로 보고 반미자주통일의 거족적대하에 용약 합류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친미굴종과 사대에 중독되어 외세에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섬겨바치는 대역죄를 더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승배하고 구호를 웨쳐도 우리 민족끼리를 목청껏 합창해야 하며 걸음을 내짚어도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주로를 내달려야 한다.

우리 겨레가 함께 손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나간다면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강력한 힘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의 확고한 담보

지금 세계는 우리 공화국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원동력으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라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마음대로 다룰리며 쓰디쓴 참패를 안기고있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70여년전 식민지노예의 수난을 당하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민족의 운명을 지킬수 있으며 힘이 약하면 외세에게 짓밟히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

자기 손에 자기를 지킬 힘을 틀어쥐어야 한다는것은 력사가 가르치고 있는 정이며 철리이다.

동방배의지국의 선량하고 근면한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의 울분속에 땅을 치며 《시일야방성대곡》의 곡성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바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기때문이다.

이러한 민족사적비극이 다시는 영원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날강도 미제의 악랄한 핵위협과 공갈에 중지부를 찍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인민은 만년을 이겨내며 전인미답의 병진의 길을 꺾듯이 걸어왔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야말로 민족의 재보이고 자랑이며 민족만대의 부흥과 번영을 담보해주는 필승의 보검이다.

조선사람이라면 북과 남, 해외 그 어디에 살든 우리 공화국이 죄많은 아메리카제국을 일거에 짓몽개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 위력을 갖추는데

우리에게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전통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8천만 우리 민족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못해낼것도 없다.

우리 민족의 부흥도 여기에 있고 통일도 이 길에 있다.

온 민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삼천리강토를 진감시킨 조국해방만세의 함성을 반미자주통일열기로 승화시켜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

대하여 더없는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세계사적인 패거에 찬양의 박수는 보내지 못할망정 오히려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그 무슨 《위협》으로 걸고들며 《제재압박》의 돌격대로 나서서 얼빠진 망동을 부리고있다.

사대매국에 환장한 남조선피뢰들은 내외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싸드》를 끝끝내 배치하여 남녘땅을 핵대국들의 대결마당으로 전락시킨것도 모자라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까지 끊임없이 끌어들이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평화》타령이 한갓 여론기만에 불과하며 오로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칠 불순한 야망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리석고 무분별한 외세와의 《대북압박공조》놀음을 걷어치워야 하며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출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일관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치단결하여 조국해방의 환희를 전민족적인 최후승리의 환희로 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대결전, 평화수호전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TV와 방송으로 련일 울리며 반미총력사전에 나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이 노래가 나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벌써 일터와 가정, 초소들마다에서 널리 불리우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이 노래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창작집단에 친필로 감사를 주시였다.

《공화국가합창단 전체 동지들이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훌륭히 창작형상해내는것으로써 우리 공화국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만족하며 전체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2017. 8.8

천만군민의 심장의 피를 끓이게 하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창작된것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공화국의 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끌어올려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천출유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

최후승리의 진군길에서 높이 울리는 노래

의 군대와 인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송가이며 범죄적인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천명한 공화국정부성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찬동의 표시로 된다.

한편의 노래에도 그 시대의 숨결이 실리고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기마련이다.

공화국의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봉화가 타오를 때마다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의 진군가들이 높이 울려 퍼져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하여 왔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공화국의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애국가》를 비롯한 많은 노래들을 부르며 새 조국건설에 자기들의 힘과 열정을 바치였다.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도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문경고개》, 《샘물터에서》를 비롯 많은 전시가요들이 창작보급되어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이 날로 중대되고 안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쓸라다질하며 수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던 전후 50년대, 60년대의 어려운 나날들에도 공화국에서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와 같은 신념의 노래가 하늘땅을 진감하며 울려 퍼졌다. 그속에서 자위의 군력은 더욱 강화되고 천리마가 하늘을 날오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도 이루어졌다.

공화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쳐야 했던 지난세기 90년대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신심드높이 가리라》

등 시대의 진군가들을 힘있게 부르며 총대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오늘은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와 《우리는 만리마기수》, 《전진하는 사회주의》,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등 신념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정의의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자도 범접 못할 핵강국, 세계적인 대륙간탄도로켓트보유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뽐어오르는 경모와 감사의 정,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려는 천만군민의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새로 나온 노래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에도 맥동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 밝

은 미래를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견고걸으신 애민현신의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삼북철강행군, 심야강행군, 화선천리강행군...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그이의 현신과 로고속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자력자강의 기지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문명한 생활을 꽃피우는 현대적인 거리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위대한 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군사적공갈과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국가핵무력건설업무를 승리에로 이끄시어 공화국을 핵과 대륙간탄도로켓트를 보유한 불

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트맹주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하제일의 령장입니다.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세계적인 군사력, 위력한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 힘으로 나라의 국력을 높이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그대로 응축된 노래이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드높이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해 총매진하고있다. 공화국의 력사야말로 노래로 개척되고 노래와 더불어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 영웅서사시라고 말할수 있다.

세상에는 노래도 많고 명곡도 적지 않다. 또 력사에는 전쟁의 국면을 열어놓은 유명한 가요도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끊을수도 가를수도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위대한 혼연일체를 소리높이 구가하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전천에 떨쳐나선 우리 조국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조선의 분노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자위의 핵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한 조선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니 뉘나 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늘어놓았다.

이 폭언은 즉시 온 행성의 경악을 자아내고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더욱 고조시켰었다. 트럼프가 막말을 한 상대인 공화국의 견지에서 보면 더구나 용납할수 없는 망언이고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철면피한 꾀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이 시각 분노를 터쳐야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기때문이다.

분노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터치는 가슴속을분이다.

미국이 지금 《분노》를 말하지만 조선의 미국에 대한 분노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세기를 이어 쌓여온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것처럼 분노하는것인가. 조선민족의 미국에 대한 사무친 증오의 기초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것인가.

거기에는 세기를 이어 조선민족과 공화국을 상대로 저질러온 미국의 천추에 용서 못할 엄청난 죄악이 응어려져있다.

조선은 지금껏 미국에 돌맹이 하나 날린적이 없었다. 두 세기전 대양건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르던 우리 겨레의 눈앞에 도적고양이마냥 불쑥 나타난것은 미국의 침략선 《서면》호였다. 그때부터 조선민족과 미

국의 악연은 맺어졌다. 미국이 40여년간에 걸친 일본의 조선강점을 어떻게 묵인하고 도와주었는가 하는것도 범죄적인 《가쓰라—라프트협정》이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로 짓밟고 조선민족의 세기를 이어오는 불행인 분열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구태여 민족의 역사를 다 말하지 않더라도 공화국이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압살과 침략책동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날뛰어왔는가를 우리 인민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세계에는 나라가 많고 큰 나라, 작은 나라들도 있지만 국가의 권리는 어느 나라에나 평등한것이고 유엔헌장에도 명백히 새겨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화국을 시종일관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부정하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에만 매달려왔다.

보다싶이 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가해자는 미국이었고 피해자는 조선민족이고 우리 공화국이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금 조선의 핵이 미국땅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해서 《분노》를 뇌가리고있다. 세상에 강도면 이보

다 더한 강도가 또 있고 철면피한이면 이보다 낮가죽이 더 두꺼운 나라가 또 있겠는가.

미국은 조선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게도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며 미국식질서에 순종할것을 강박해오고있다.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조선에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미국은 아직도 모르고있다. 힘들어도 자주적존엄을 누리며 사는것이 제일이고 행복이기에 미국의 부당한 제재압살소동과 핵위협에 맞서 자위의 힘을 역척으로 다져온 우리 조선이다.

행성을 련속 뒤흔들어온 조선의 핵퇴성은 자주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굳센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고 그것을 끝내내 목살하고 굴종을 강요해나선다면 결단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용서치 않으리라 하는 선군조선의 단호한 경고라고 할수 있다.

상대가 자기에게 저지른 죄악의 크기만큼 분노의 키는 자라는 법이다. 세계가 놀란 조선의 다발적, 련발적인 초고속 핵퇴성은 미국의 끝모르는 대조선범죄에 대한 정정당한 대응인것이고 대륙간도 로켓 《화성—14》형의 최

대발사능이는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을 그대로 상징해주는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능력을 산술적인 셈법으로 서만 고찰하지 말고 그에 깔린 조선의 분노를 헤아려보아야 한다. 현실은 이러할진대 미국땅에서 조선에 대해 《분노한다.》는 너두리가 울려나왔으니 얼마나 가슴스러운 망언인가. 미국이 《분노》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미국의 력사는 성조기가 말해주듯 침략과 약탈의 력사이다. 지구상 도처에서 전쟁과 내란을 일으키고 행성의 전 인류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강요해오면서 미국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직 다른 나라와 민족의 피를 빨아마시는것을 도락으로만 여겨왔다. 그야말로 자기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흘리는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권리라도 있는듯이 착각하고 갖은 죄를 저질러온 미국이다.

자기들은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수 있어도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그런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으르렁거려온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반미의 작은 싸이라도 돌아날 기미만 보이면 행성의 그 어딘진, 어느 나라이건 무참하게 짓밟아왔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그렇게 행성을 피바다에 잠그어오면서도, 온 지구를 통해

로 전쟁마당으로 만들어가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폴프나 치고 신사인듯 거드름을 피우는 오만한 미국이다. 저들은 조선을 세기를 이어 핵위협하고 못살게 굴어도 무방하지만 조선은 그에 조금이라도 대항하면 안된다는 병적인 사고를 지닌 뻔뻔스러운 미국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미국도 도저히 예상못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있다. 저들과는 국력에서나, 령토와 인구수에 있어서나 대비도 안된다고 여겨온 조선, 제재를 계속 가하면 쓰러질줄 알았던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의 이런 광기어린 망상, 미국만이 행성의 지위를 독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미국식우월감》, 그 거만한 코대를 여지없이 꺾어버린것이다.

미국이 자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해 공포감을 금치 못하면서 《분노》한다 어쩌다 하는데는 랭전종식이후 저들의 독점적지위가 위태롭게 된데 대한 불안도 깔려있다. 미국의 목적은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려는것이다. 그런데 핵을 켜 조선에 의해 미국본토까지 위협 당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이 침략적기도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다.

미국이 자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해 공포감을 금치 못하면서 《분노》한다 어쩌다 하는데는 랭전종식이후 저들의 독점적지위가 위태롭게 된데 대한 불안도 깔려있다.

미국이 자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해 공포감을 금치 못하면서 《분노》한다 어쩌다 하는데는 랭전종식이후 저들의 독점적지위가 위태롭게 된데 대한 불안도 깔려있다.

미국이 자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해 공포감을 금치 못하면서 《분노》한다 어쩌다 하는데는 랭전종식이후 저들의 독점적지위가 위태롭게 된데 대한 불안도 깔려있다.

미국이 자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해 공포감을 금치 못하면서 《분노》한다 어쩌다 하는데는 랭전종식이후 저들의 독점적지위가 위태롭게 된데 대한 불안도 깔려있다.

미국 《분노》는 바로 이에 기인하는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분노가 아니라 날강도의 파렴치한 행위이며 자기 운명을 다 산자의 최후발작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고 미국의 운명이 달라질수가 있겠는가.

조선과 미국의 세기를 이어오는 대결전은 지금 마지막계선에 이르렀다. 이 최후대결전에서 승리의 키를 확고히 쥐고 있는것은 조선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은 보충을 가지고서도 핵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미국을 때려눕히고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였다.

그 조선의 손에 오늘은 수 소탄과 핵탄, 대륙간탄도 로켓 트가 쥐여져있다. 이제 무엇이 두려울것인가.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도 발아래로 굽어보게 된 조선이다.

미국은 찍하면 힘자랑을 하지만 아직 조선의 힘에 대해서는 모르고있다.

조선의 힘, 그것은 미국도, 세계도 아직 모르는 미증유의 커다란 힘이다.

그 힘에 조선의 쌓이고쌓인 분노를 합친다면 이 세상 가장 무서운 불화산이 될것이다.

미국은 조선을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에서 련일 터져나오고있는 온 행성을 놀래우는 서리발치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허성철

제재도, 압력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때까지 우리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별일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하여 못살아가겠는가. 미국이 우리 나라에 제재를 더 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수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평양을 찾아온 전 미국대통령 카터와 나누신 담화내용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모한 전쟁책동과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주석님의 자주적신념과 배짱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말씀이다.

제재를 아무리 가해도 끄떡없다는것은 공화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헤쳐오는 나날에도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를 빛나게 수호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는 세기를 이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었지만 공화국은 추호도 굽어들거나 변한것이 없으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우주개발을 위한 정정당당하고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핵전쟁책동으로부터 공화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로막아보려고 퍼논이 되어 날뛰었다.

특히 지난해에 공화국에서 울린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에 당황망조한 미국의 단말마적인 제재책동은 더욱 야만적으로 감행되었다.

그러나 조선과 미국의 총포성없는 이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와 지도밑에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건설한 려명거리이면 충분할것이다.

그리고 공화국이 그 어떤 강제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맹주국임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 대륙간탄도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를 비롯하여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난 력사적패승들은 그 어떤 제재도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날강도적으로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안들은 공화국의 초강경대응과 자강력의 기치앞에 물거품으로, 휴지장물로 되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주는 작용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동반된다. 공화국의 자주권을 램

혹하게 침해하고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제재책동에 분노한 조선인민의 보복열의는 력학적으로 도저히 계산할수 없는 미증유의것이다.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하고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미국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멸적의 보복의지를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추악한 제재놀음은 오히려 공화국의 강대성을 더욱 립증해주고 인민들과 군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만을 더해주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더 큰 기적을 낳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만 계

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미국놈들이 제재를 가하겠으면 가하라. 할것은 다 하고 가질것은 다 가진 우리에게 제재라는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가져다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겠다.

이것이 반미의 활화산 지대로 되고있는 이 땅에서 군대와 인민이 터뜨리는 굳센 각오이고 배짱이며 의지이다.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애국의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지켜들고 최후승리의 령마루에 폭풍쳐 내달리는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강문영

세계평화리사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규탄

세계평화리사회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규탄하여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 2371호가 나온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에게는 자기의 운명과 앞날에 대하여 자기들 자신이 결심할 권리가 있다.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책동을 규탄한다.

또한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사연습강행과 미국의 남조선주둔을 단죄한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지역의 긴장상태만을 더욱 격화시킬뿐이다.

조선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성명은 조선에 제재를 가하고 조선인민에게 고통을 주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제재는 사실상 침략의 한 형태이며 군사적간섭의 전주곡이다, 조선에는 제재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

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탄을 사용한 나라이며 오늘까지도 핵선제타격론을 제창하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유엔은 현장의 원칙들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와 시위

《미당국의 조선러행금지의 허구성을 극복하자》

재미동포인터넷언론 《민족통신》 대표 로길남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부당성의 일면을 까밝히는

글 《미당국의 조선러행금지의 허구성을 극복하자》를 발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다.

미당국의 《조선러행금지》의 허구성

미국무성이 7월 27일 판보를 통해 미국시민들의 북조선방문을 전면금지할 정책을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무성은 미국시민들의 조선방문을 전면금지하는 판보를 7월 27일 발표하고 이날로부터 30일후인 8월 하순부터 발표시킬것이라고 한다. 미국인들가운데 일반관광객들의 조선방문이 전면금지되고 《리산가족》들이나 특별목적에 있는 《방북》인 경우에는 미국무부가 조선방문에 한해 특별허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있다. 이 경우는 《미국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바에 실시한바 있는 제도가 도입될것으로 보인다.

조선방문전면금지는 있을수 없다.

이것은 형식적이거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는 미국내 헌법에도 저촉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방문 전면금지》라는 어휘에 대하여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단지 《리산가족》을 둔 재미동포들이나 개인적으로 조선과 사업을 하는 재미동포들은 미당국이 발표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지난 시기에 비해 조선방문시 다소 귀찮아지는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미국무부에서는 특별허권을 발급할 때 《조선이 위험한 지역》이기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수도 있다.

미국무부측은 지난 10년간 미국시민이 조선에서 범죄행위로 조선당국에 련행된 인원을 16명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1년에 1.6명의 미국인관광객들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의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련행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이 조선을 방문하는 수자들을 미국무부나 조선당국모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대략적으로 1년에 800명내지 1 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의 조선방문경우 범죄률은 0.1%가량 된다는 계산이다. 이것도 미정보기관이나 남조선정보기관에서 공작하는 일이 없다면 미국시민의 조선내에서의 범죄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미국무부는 《미국정부가 미국인들의 북관광을 전면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대학생 오토 완비어씨의 사망이후 미국각계에서는 북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라고 한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것은 지극히 정치적인것으로 풀이된다. 완비어의 죽음에 대한 원인들도 미국측과 조선측의 주장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완비어의 죽음을 놓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따라서 완비어때문에 《안전문제》로 조선러행금지정책이 나오게 되었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미국인들의 범죄수자는 남조선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미국내 외국인들의 범죄수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을것

미트럼프 행정부의 《조선러행 전면금지》의 허구성

미당국의 조선러행전면금지라는 말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어휘이고 발언이다. 이것은 미국헌법이 허용하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유엔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세계 어느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라, 가지 말라.》고 할수는 없다. 그런데 미트럼프행정부 조선러행전면금지라고 여론을 조성하는것은 그 자체가 미국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으로 보인다. 미국내 남조선국민들의 불법체류자들(탈남자들)이 수십만명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되고있다.

또한 남아메리카계사람들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로 머물면서 자신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고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나라자체가 아메리카인디언들이 원주민이었는데 미국양키들이 이들 수천만명을 학살하고 빼앗아 깔고앉은 나라이기때문에 불법체류자신분의 남아메리카계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정부의 집권자들은 미국헌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미국시민들을 크게 위하는척 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량심도, 상식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북미관계, 즉 조미관계에서도 미국당국의 립장과 자세는 악질적인 제국주의세력의 만행으로 일관해왔다. 미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한 국제사회에서의 만행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악질적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미제국주의세력이 건국한지 241년동안의 짧은 역사를 통해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것이 무려 150여차례가 되고 암살과 음모, 도감청 및 불법공작 등을 한 사례도 무려 1만 5 000여건이 된다고 미국의 량심인들 스스로 고발한다.

한때 구바에 대해 그랬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련행제한이 없었는데 미당국자들은 구바에 한해 련행할 때 신고를 하라는 제도가 있었다. 신고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당시에도 련행을 가지 못하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러행의 자유》를 유린할뿐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명기한 조항도 위반하기때문이었다.

조선러행을 제한하려는 미당국의 의도는 사실상 《안전》

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유치한 외교행태의 하나로 볼수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무한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종래에 써먹어왔던 핵우산으로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조선이 5차례에 걸쳐 핵시험에 성공했고 이제는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도 성공하고있어 미당국이 힘으로 누를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고말았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미당국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유치한 방법으로 외교행태를 자행하고있다.

그중의 하나인 련행금지라는 카드를 리용하여 압력을 가해 보려고 하고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있다. 이것은 미국자신이 허약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싶이 미국의 힘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악화일로에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과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재미동포들은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펼치는 국내외 정책이 얼마나 유치한가를 절실히 느낄것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그렇기때문에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는 우리 민족의 진로인 6.15선언과 10.4선언이 우리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것도 알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세력인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나 긴장을 조성하여 군산복합체가 살찌기를 원하고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의 목적은 미국군산복합체의 돈벌이에 있었다. 남조선이 지금 세계무기수입국들중 1위로서 한해에 (2014년자료에 의하면 그해에) 78억US\$의 무기를 수입하고있다. 무기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서 한해에 362억US\$로 집계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반시민들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말이 아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는 식민지남조선으로부터도 빛을 지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또 세계적으로 인심을 잃은 지경이다. 지금 일본과 남조선만이 미국을 상전처럼 섬기고있는 신식민지노예국으로 나타나고있다.

오늘날 조미대결에서 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갈것인가를 전망하는 국제평론가들의 글들이 눈길을 끌고있지만 조선자체의 정체분석가들이 쏟아내는 글발들이 한층 더 돋보였다.

동태관 인민기자의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가 《로동신문》(2016년 9월 26일)의 한면을 짝 채우는 내용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 정론이 담고있는 내용들은 조선의 미래를 명쾌하게 전망해주었다. 한마디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이다.

미당국이 유치한 외교대책—《조선방문금지정책》으로 나와도 그것은 허구성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것이 북조선동포들의 신념이다.

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북미간에 관계정상화를 통해 전쟁보다는 평화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있다. 이들 일반 미국시민들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되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동시에 북미관계개선이 이루어져 평화정정이 체결되면 미국본토에 북조선핵이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재미동포들은 이제부터 미국인단체들과 동포단체들을 대상으로 트럼프행정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조선바로알기운동 등을 위하여 미국일반인들과 동포대중들의 조선방문권장운동을 한층 더 가열차게 전개해야 할것이다.

재미동포들은 또한 미국의 민권변호사협회(ACLU: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을 통하여 조선방문의 금지

정책이 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폭로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국의 평화운동단체들인 《A. N. S. E. R Coalition》, 혹은 《International Action Center》 등과 련계하여 집단소송 및 개인소송 등을 전개하여야 미국의 보수세력의 전쟁책동에 압박을 가할수 있다.

또한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는 미군계대군인회총신들로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 단체는 2001년부터 《미정부당국은 한시간당 836만여US\$를 낭비한다.》라고 폭로하고 미당국이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고있다고 규탄하면서 평화운동을 전개해왔다. 재미동포들은 이 단체와의 련대운동을 통해서도 조선반도평화운동을 펼칠수 있다.

에국적재미동포들은 또한 전쟁과 긴장을 부추기는 남조선미국동맹을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남북연합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간섭책동과 지배정책을 폭로하는 한편 남조선이 자주권을 가질수 있도록 계몽하면서 미국의 허수아비정권에서 탈피하는 자주정치세력을 지원 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해 나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미전역에 있는 개혁, 진보세력들이 하나의 투쟁대오로 결집되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이것을 위해 각계각층 단체들의 대표들은 련대련합운동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재미동포사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러한 운동이 재카나다동포사회, 재중동포사회, 재일동포사회, 재유럽동포사회, 재로씨야동포사회 등으로 확산되어 전세계적운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주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열쇠는 첫째도 단결이고 둘째도 단결이며 셋째도 단결이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자주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성공도 3자주체의 단결과 단합에 달려있다.

평양의 교회들에서 조국해방 72돐 기념레배 진행

8월 13일 일요일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조국해방 72돐 기념레배가 진행되었다.

봉수교회에서 진행된 기념레배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성원들과 교직자들, 봉수교회와 평양시안의 가정례배처소 신자들 그리고 평양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

레배에서는 나라의 자주적이며 평화적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도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일군》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에서는 8.15해방의 기쁨으로 설레이던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민족분열의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

의 대미굴종행위로 하여 오늘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위험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는것, 더우기 8월 하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서 벌리려는 《을지프리트미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민족에게 기어이 핵전쟁의 참화를 들춰우려는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위로 된다는데 대해 단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평화의 일군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도발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운동에 적극 펼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레배에서는 또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남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합의한 2017년 북남 평화통일기원 공동기도문이 낭독되었다.

본사기자

시 읽드려 사죄하라, 트럼프여

권 말 선

전쟁을 운운하며 우리 민족 육보인 미국이여
이참에 제대로 사죄하는 법 배우라
살륙을 지시하던 손가락 모두 펼쳐 가슴에 얹고
멀시로 찌러보던 오만가득한 눈 내리 깔고
거드름 피우며 폭신한 의자에 쪼고 앉던 다리 꿰어
무참히 죽였던 만 사람의 령혼 생각하며
수천을 죽이려 들었던 우리에게
철저히 사죄하라 반성하라 고개숙이라
거짓과 탈취와 칠면피 적반하장 강도에
강패무리

미제의 이름앞에 불일수 있는것중
아름다운것은 없구나, 단 하나도
미국 너로 인해 우리가 하루라도 성한 날
있었더냐
미국 너로 인해 상처입지 않은이
있었더냐
서로 손가락질하며 미워한 세월이 원통
하다
로쇠한 허바닥으로 말대포나 쏘아대지만
전쟁전에 이미 진것을 누군들 모르라
그러니 무기를 버리고 이 땅을 떠나라
네 갖고 놀던 충실한 장난감이었던
《보안법》 따위 내 불살라버리련다
없었던 그 자리 먼지 한톨
그늘 한자락 남기지 말고

부리던 주 《한》 미군 다 데리고
탄저균, 보툴리움, 오염된 기름
걸레가 모자라면 허바닥으로
다고 또 다고 활아서라도 깨끗하게
순박한 우리 땅 되돌려놓고 가버려라
이제라도 미국없는 세상 살아야겠다
진정 해방된 세상 누리며 살아야겠다
우리 민족끼리 살 부비며 살아야겠다
미군 군화발에 짓밟힌 령혼들앞에
꿎어엎드려 참회하라 눈물흘리라
용서를 빌라, 트럼프여
사죄하라, 미국이여
양키 고 홈, 울며 떠나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시보》
2017년 8월 14일호에서 전재)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가 미국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제압박동과 포악한 군사적대결망동으로 하여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평화적압박, 외교를 통한 조선반도 비핵화이라고 하면서 북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우선시하지만 그 외교는 군사적방안의 지원을 받고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가까이 평양과 협상할것이다, 북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갈것인지, 《핵고집》하며 《빈곤과 고립》의 길로 갈것인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회피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공화국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에 겁을 먹고 국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면서도 패배감을 감추고 허세를 부리는 미국의 행태에 조소를 금할수 없다.

문제는 세계를 들었다 놓은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미본토까지도 무진막강한 핵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는 이 시각 과연 미국이 공화국의 선택을 놓고 주재념은 혼시를 할 새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공화국은 미국의 전대미문의 제재압박과 핵위협속에서도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강력한 핵

억제력을 다져왔으며 핵무력완성의 국가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지나온 조미대결의 력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평화와 번영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보검을 갖추게 된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나 미국은 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들 구실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파생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불법비법의 범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극악무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참수작전》을 떠들며 남조선과 그 주변의 하늘과 땅, 바다로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공화국의 전략적거점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실전연습과 위력시위를 음모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것이라고 단호한 경고를 보내었다.

공화국은 빈말을 모르며 무엇이든 결심하면 한다. 사실상 공화국은 이제 는 불장을 다 보고 칠것

은 다 쥐었으며 미국의 핵우세와 핵패권에 당당히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명명백백한 공화국의 선택이다.

이는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세계, 미국식 《힘의 논리》에 기초한 강권행위가 성행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옹당한 선택이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에 극도로 첨예한 긴장상황이 조성된 조건에서도 위험천만한 군사적망포격기와 핵항공모함타격단,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가뜰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전쟁점착으로 몰아가게 될것이며 그 파장에 생겨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소한 불씨도 미국의 중국적과멸을 앞당기는 도화선의 불꽃으로 될것이다.

판도주변 30~40km 해상수역에 대한 공화국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포위사격방안에도 불맞은 황소처럼 놀라 그리도 허둥대는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략수단들을 끌어들이 다놓고 공화국의 면전에서 또다시 대책없는 객기를 부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핵전략자산들과 본토를 밀천으로 내대고 하는 마지막도박판으로 될것이며 아메리카제국에 참혹한 재앙을 불러오게 될것이다.

미국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쪽에 더 불리한지 득실판계를 잘 따져보아야 할것이며 세계면전에서 비참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며 그 누구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도 아니다.

미국이 본토의 안전과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공화국의 타격권에 들어있다는 현실, 섬멸적보복타격수단이 공화국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하는것이다.

미국은 그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대조선제재압살책동과 군사적대결망동이 중국적과멸을 앞당긴다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리성적인 사고밀에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본사기자 서 희

공화국과 추종의 결과는 비참한 종말판

최근 공화국의 연속적인 대미초강경조치들에 넘어져버린 미국의 부침도발광기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국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동원하여 호전적인 망발을 뱉어놓는가 하면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방전쟁》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위협천만한 전쟁나발을 함부로 쏟아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호전적인 망발은 패배를 인정하는자들의 비명소리, 한숨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가중되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미제의 핵위협공갈을 단호히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수호하며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할수 있는 강위력한 힘을 갖추어왔다.

미국의 그 어떤 위협이나 압력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군력을 최강으로 다져온 공화국을 놀래우거나 건드릴

수 없다. 있다면 오직 미국과 최후의 결산뿐이다. 침략의 화염은 조국수호를 위한 정의의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모한 핵도발은 무자비한 선제보복으로 짓부셔 버리는것이 공화국의 불변의 의지이며 기상이다.

미국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대책없는 객기를 부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갈수록 그것은 제손으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것으로 될뿐이다.

남강도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한줌도 못되는 친미매국노들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전쟁의 재앙과 불행을 당한다는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주냐, 예속이나》, 《평화냐, 전쟁이나》, 《제재와 대결은 해법이 아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놀이터가

아니다》, 《초불민심을 외면하고 미국에 추종하는 현 당국은 정신차리라》고 분노를 터뜨리며 《〈한〉 미동맹 폐기》, 《주 〈한〉 미군철수》, 《전쟁연습 반대》, 《대북제재 중단》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사람들의 생명 안전보다 저들의 권력 유지에 급급하면서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덩달아 춤추며 상전의 비위만 맞추는 굴욕적인 추태를 부리고있다.

미국의 지배에 굴복하고 그에 추종하는 길은 전쟁의 길이며 스스로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는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반미 자주화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북남관계개선이 있으며 민족번영의 활로가 있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마지막 길을 걸고있는 미국에 추종하는 쓸개빠진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황 진 옥



최근 공화국이 단행한 자위적인 조치에 열이 빠진 남조선당국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설쳐대고 있다.

단편적인 실례가 바로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구실로 《싸드》 발사대 4기를 올해안에 추가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분주당을 피워대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부와 환경부를 내세워 성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싸드》가 주변환경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전자파추적결과》라는것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싸드》 배치문제에 하여 남조선당국에게 차려진것은 막대한 경제적피해와 안팎으로 조여드는 주변국들의 압력뿐이다.

세상이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싸드》는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잠재적적수들을 견제하고 세계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의 한 고리이다.

이런 리유로 하여 처음부터 《싸드》 배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주변국은 남조선당국이 《싸드》를

배치하는 경우 저희시장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기업들이 무사치 못할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의 남조선관광을 중단하는 등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주변국으로부터 통관금지처분을 받은 식료품과 화장품품목은 48가지에 달하며 남조선기업들은 이 나라에서의 영업활동중단과 중국인관광객의 감소로 판매수입이 계속 줄어

들고있다. 특히 《싸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은 주변국내 112개 상점 가운데 74곳이 영업정지되어 지금까지 약 5억US\$의 손실을 입었으며 연말까지 그 피해는 10억US\$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주변국은 《싸드》 보복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울리며 강경하게 나가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대로 주변국으로부터 심대한 경제보복을 당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가련한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강박하고 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현실정세국면이 《싸드》 배치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서둘러 추가배치를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놀음

도 벌렸지만 안팎에서 계속 연어맞는 꼴이 되고말았다.

《싸드》를 끌어들이는것으로 하여 미국과 주변국 사이에 끼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격으로 여기저기서 연어맞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밖에 보는것이 없기때문이다.

상진인 미국에게 목졸이 매여 외교적고립과 온갖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삐죽소리 한마디 못하고 병어리 뺨가슴앓듯 해야 하는 남조선 당국의 처지는 누가 보아도 가련하다 해야 할것이다.

《싸드》 배치를 부정하지니 미상전의 랭대가 두렵고 받아들이자니 주변국의 경제보복이 엄청난 것이어서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져버린 남조선당국이다.

이것은 대국이라면 던져놓고 순종하고 굴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행위가 초래한 엉당한 봉변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의 사대매국적인 행위에 격분하여 《싸드》 반대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외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백해무익한 제양단지인 《싸드》를 계속 불안고 돌아다 상관없다고 떠벌인데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영 식

《〈한〉 미동맹》이 가져다줄것은 핵참화뿐이다

최근 공화국의 초강경 의지에 절결해난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한〉 미동맹》 강화를 소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굳건한 〈한〉 미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유지》를 력설해왔으며 청와대와 외교부것들은 《북의 도발위협이 도를 넘었다》느니, 《즉각 중단》이니 하고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긴밀한 〈한〉 미공조대화》를 고아였다. 특히 국방부장관 송영무를 비롯한 군부 패거리들은 공화국이 판도포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려 하는데 대해 《〈한〉 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

니, 《〈한〉 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만하지 말것을 경고한다》느니, 《북이 도발하는 경우 〈한〉 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급박한 정세가 조성된 이 시각에도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한〉 미동맹강화》를 떠벌어대는 남조선당국의 얼빠진 처사는 미국의 핵전쟁불몽치에 기름 판 송영무를 비롯한 군부 패거리들은 공화국이 판도포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려 하는데 대해 《〈한〉 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

니, 《〈한〉 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만하지 말것을 경고한다》느니, 《북이 도발하는 경우 〈한〉 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급박한 정세가 조성된 이 시각에도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한〉 미동맹강화》를 떠벌어대는 남조선당국의 얼빠진 처사는 미국의 핵전쟁불몽치에 기름 판 송영무를 비롯한 군부 패거리들은 공화국이 판도포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려 하는데 대해 《〈한〉 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

니, 《〈한〉 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만하지 말것을 경고한다》느니, 《북이 도발하는 경우 〈한〉 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그들은 미국본토 또는 최소한 미국령지에서 전쟁을 체험할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더구나 미국집권자가 《전쟁이 나면 조선반도에서 나고 수천명의 죽음이 나고 거기서 나는것》이라고 망발을 뱌는데 대해 온 민족이 분노에 치를 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미동맹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남조선당국이 친미사대에 얼마나 미쳐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얼마 전 《8.15경축사》라는데서 《모든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는데 《전쟁불사》를 고아대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바로 전쟁으로 가는 길이

며 그것이 가져다줄것은 핵전쟁참화밖에 없다. 남조선의 현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와의 《동맹》강화가 아니라 민족 자주적립장에서 피를 나눈 동족과 뜻과 힘을 합쳐 나가는데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길이다.

남조선 각계 층이 《〈한〉 미동맹 필요없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이 각계층 민심과 온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미추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역사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응 당 한 봉 변

반미단체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물러갈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반미통일선봉대가 12일 서울의 광화문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손을 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얼마전 미국집권자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조선반도에서 수천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떠벌인데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남조선땅을 더

럽히고 수많은 목숨을 앓아간 미국이 지금 《예방전쟁》을 운운하며 전쟁을 몰아오고있어 조선반도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사람들의 생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으며 미군이 있는 곳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본토 또는 최소한 미국령지에서 전쟁을 체험할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체면을 지키고 나라를 유지하자면 흰기를 들고 잘못을 사과하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집권자도 허튼 소리를 그만두고 내외의 총고에 귀를 기울여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반미통일선봉대의 투쟁목적은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미국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모두가 힘을 합쳐 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싸드》 배치를 막아 내라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동안 참가자들은 전쟁망발을 거리낌없이 뱌며 미국집권자의 입을 끈으로 비끄러내고 미국기발을 찢어버리는 의식을 통해 자기들의 반미감정을 분출시켰다.

집회가 끝난 다음 반미통일선봉대는 미국대사관에 항의문을 들이쳤다.

본사기자

세인을 경악시키는 괴뢰군내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

남 조선 인권 대책 협회 조사 통보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육군 2작전사령관놈의 사병학대행위가 폭로된것을 계기로 군부내의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번 사건은 괴뢰군에서 만연하고있는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병영문화》니,

극도의 염전, 염군공조가 빚어낸 인권참사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인 남조선괴뢰군내에서는 절망감과 공포의식, 염전, 염군공조가 항시적으로 만연되고있다.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는 괴뢰호전광들의 복침전쟁소동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있는 그 고질적병폐는 오늘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인권참사를 빚어내고있다.

최근 괴뢰군인권센터는 2016년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있는 《대북경계태세》로 하여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처해있는 괴뢰군장병들의 정신육체적상태가 극한에 이르렀다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대결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불장난소동에 매일같이 시달리며 지칠대로 지친 괴뢰군사병들의 정신육체적피로는 위협계선을 넘어서고 신경이 예민해진 장교들과 하사관들, 사병들속에서는 서로 폭행하고 지어 살인까지 하는가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다.

그 참혹상은 전선지대 괴뢰군부대들의 실태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강원도에서만도 1월 26일 고성일대에서 사병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한 사건과 4월 10일 해안가에서 일어난 하사관의 자총사건, 5월에 철원일대에서 신입사병의 시체가 발견되고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사병의 자총사건 등이 발생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살참극이 전선지대에서 일어나고있다.

지난 8월 9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의 전방부대에서는 사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금 전선지대의 괴뢰군사병들은 《복을 감시하면 뭘하나. 전쟁엔 여기에 있는데...》라며 당국의 전쟁불장난소동으로 골절된 불만을 표시하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언제 비명횡사할지 모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찍하면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강한 안보》니 뭐니 하며 《국방개혁》에 대해 떠들어대고있지만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어날수 없듯이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이며 온갖 범죄의 서식장인 괴뢰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범죄를 절대로 막을수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최근 괴뢰군내의 인권유린행위의 참혹한 실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그 일단을 묶어 조사 통보를 발표한다.

라도 제대시켜달라고 애원하고있다.

비단 전선지대뿐이 아니다. 괴뢰군부대 어디서나 전쟁은 당국과 국방부나 할 일이고 자기들은 목숨이나 부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면서 전선지대에 대한 병역을 태공하는것과 같은 염전, 염군공조가 만연하고있다.

괴뢰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면서 제대시켜줄것을 요구하는 괴뢰군수는 무려 8만 5 000여명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자살이나 총기란사 등

강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인권유린전시장

남조선괴뢰군은 양기식문화가 판을 치는 썩어빠진 식민지체제하에서 돌아난 독버섯과 같은 존재이다.

괴뢰군안에는 잔인성과 포악성을 군인의 첫째가는 기질로 삼는 미국식병영문화가 깊이 침습되어있으며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괴뢰군의 치욕의 력사가 그대로 군부내의 치명리는 인권유린의 력사로 이어져왔으며 오늘도 괴뢰군은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 남조선사회 각계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최근 괴뢰군내에서 감행되고있는 참혹한 인권유린행위는 그 뚜렷한 증거이다.

괴뢰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부내에서는 철갑모를 씌운 다음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기,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개흉내를 내기, 바닥에 뱀아놓은 가래집합아먹기, 발가벗기고 모욕주기 등 인면수심의 온갖 악행들이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지난해 7월 괴뢰해병대에서 일어난 《식교문》사건이 공개되었는데 악마로 길들여진 상급들은 신입사병의 몸무게를 90kg으로 늘인다음 음식물을 강제급식시키고는 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그의 부모들은 《몸무게를 90kg으로 만든다며 그런짓을 했다니 우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킬수 있는 《관심 및 위협사병》이 료군에만도 8만여명을 헤아려 괴뢰군은 말그대로 정신병원을 방불케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괴뢰군에서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림병장》이라는 말이 더욱 파다하게 퍼져가고있다.

이 말은 남조선에서 《전과사단》, 《사고사단》, 《기피1순위》로 불리워지고있는 전선동부의 괴뢰육군 22사단에서 몇해전에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말이다.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폭행으로 달래는 상관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생죽음을 당한 윤일병타살사건과 여러명의 상관과 동료들을 사살한 림병장총격사건은 괴뢰군사병들에게는 개죽음을 당하든지 살인자가 되든지 두길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의 복침전쟁소동이 야말로 군부내의 참혹한 인권유린을 산생시키는 악재로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괴뢰군안에서 인권유린행위는 언제 가도 근절될수 없을것이다.

리 아기가 집집승인가.》고 항변하였지만 군부장관들은 그 사병을 다른 부대로 조동시켜 놓고 또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괴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한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데 의하면 최근 괴뢰군에서는 나홀에 한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있으며 그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과고 한다.

상관들이 못생긴 얼굴을 바로잡아준다면 면상을 후려치고 눈길이나 주눅타고 폭행하고 코를 곤다고 하여 기합을 주고 세면장에서 먼저 나간다고 하여 그의 몸에 오줌을 갈기고 심지어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발과 주먹을 휘둘러대는것은 괴뢰군부대들에서 레상사로 되고있다.

이런 정신육체적고통을 강요당하는 괴뢰군사병들이 자살의 길을 택할수밖에 더 있었는가. 괴뢰군생활을 하고있는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장교와 사병을 막론하고 심심풀이, 성노리개로 간주되고있으며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성희롱과 성폭행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괴뢰군인권센터가 100명의 여성사병들과 장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라는것을 진행한데 의하면 5명중 한명이 성적학대를 당하였다고 한다.

지난 5월 24일 괴뢰해군의 한 여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병실에서 목숨을 끊는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치욕속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여성들 또한 이루 헤아릴수 없다.

사상 최악의 패륜패덕이 살판치는 괴뢰군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철창없는 수용소》, 《불구제작소》, 《시체제조소》라고 저주를 퍼부

괴뢰군상층부에 의해 더욱 성행하는 인권범죄

오늘 남조선괴뢰군에는 일확천금을 노린 군부고위층들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군내의 마피아로 불리우는 《군피아》가 활개치는 속에 인권유린행위가 더욱 성행하고있다.

괴뢰군부의 고위층들이 출신과 인맥을 기본으로 괴뢰군내에 여러 사조직들을 만들어놓고 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돈난가리를 쌓아올리며 부정부패를 일삼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정부패행위는 반인륜적악행을 동반하게 되는 법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괴뢰육군 2작전사령관놈과 그 녀편네가 감행한 공판병 《갑질》사건을 통해서도 이를 잘 알수 있다.

《갑질》은 봉건사회에서 량반관료들과 부자들은 《갑》으로, 천세없고 돈없는 백성들은 《을》로 분류하고 《을》에 대해 횡포모도한 착취와 전횡, 온갖 천대와 멸시를 일삼는 《갑》의 부정부패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써왔다.

그런데 망조가 비긴 남조선사회에서 이러한 《갑》과 《을》의 불평등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권세있고 돈있는자들의 횡포가 만연되면서 《갑질》이란 말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온갖 악행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장성이 되면 100가지가 바뀐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괴뢰군장성이 되면 전속부관과 운전사, 서류처리와 음로심부름을 하는 당번병, 청소소 맡은 공판병, 요리 맡은 조리병 등을 두고 막대한 혈세로 배를 불리우며 특별대우를 받고있다.

이러한 특전, 특혜에 썩들대로 썩는 2작전사령관놈과 그 녀편네는 당번병, 공판병, 조리병을 비롯한 사병들을 하인처럼 여기면서 어느때든지 호출수 있게 손목에 전자번호팔찌까지 채워놓고 수시로 불러대어 빨래와 다림질, 위생실 청소 등 온갖 잡일을 다 시키다 못해 안락의자와 바닥에 떨

고있으며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악마같은 곳에 갈수 없다.》는 항변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는 속에 병역기피는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군기강》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반인륜적인 폭행들과 악행들을 합리화하고 적극비호해주고있으니 괴뢰군내에서 인권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한것이다.

어진 손톱, 발톱까지 치우라고 강요하였다.

지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한다고 하여 사병들에게 썩은 과일이나 음식찌꺼기같은것을 집어던지면서 마구 욕지거리를 퍼붓곤 하였으며 그 고통을 참을수 없어 일부 사병들은 자살까지 시도하였다.

특히 작전사령관놈은 《대부인은 련단장공이므로 례의를 갖추라.》고 호형질을 해대는가 하면 불만을 품은 사병들에게 가혹한 징벌을 가하곤 하였다고 하니 괴뢰군상층부의 사병학대행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얼마전에는 괴뢰육군 39사단장이란자가 한밤중에 술상을 차리라고 호통치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사병을 구타하였으며 담배를 피울 때 재떨이를 들고있게 하는 등 기괴하고 야만적인 짓거리들을 해대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군인사농음을 빌려놓고있지만 물망에 오른 인물들은 너나없이 사병사망사건진상을 은폐하려다가 덜미를 잡히고 군수업체들로부러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를 특등범죄자등인것으로 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군인사는 도처가 지뢰밭》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 고 괴뢰군내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자리에 있는자들이 전부 이꼴이니 남조선에서 군인권문제해결은 사상무각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욱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것은 괴뢰군부의 고위층들이 극악한 인권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가리워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는가 하면 군부내의 인권유린행위들을 묵인조장하고있는것이다.

지난 7월 각종 폭행에 시달리던 괴뢰육군 22사단의 한 사병이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매일 눈을 뜨는것이 괴롭고 매 순간 모든것이 끝

나기를 바랄뿐》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7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괴뢰육군참모차장이란자의 참가하여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천만뜻밖에도 진상구명이 아니라 《언론동향파악 및 대응》과 《유가족들에 대한 통제》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공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괴뢰군내에서 자살사건들이 연발하고 그때마다 괴뢰국방부 장관이요, 합동참모본부의 장이요 하는자들이 사과놀음도 벌리고 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상구명을 쫓쳐대고있지만 죽은자만 있고 죽인자는 없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악순환만 되풀이되고있는것은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병폐를 바로잡아야 할자들이 오히려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인권유린을 비호조장하고있기때문이다.

심지어 리명박, 박근혜와 같은 천하악귀들은 2006년에 설립된 《군의문사진상구명위원회》까지 해체하고 괴뢰군내에서 발생하는 온갖 인권유린범죄들을 덮어버림으로써 남조선민심의 분노를 고조시켰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원인모르게 죽어간 자식들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진상을 밝혀낼것을 요구하는 피해자가족들의 절규가 구천에 사무치고있으며 수많은 영령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행동고에 싸늘한 시체로 누워 진상구명의 날만을 고대하고있다.

* *

지금 남조선당국은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바로잡을 대신에 우리 공화국의 《핵문제》,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걸고있으며 푼수에도 맞지 않는 《국방개혁》놀음을 빌려놓고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미쳐달뼉고있다.

미국의 전쟁하수인, 극도로 타락하고 취약한 오합지졸의 무리인 남조선괴뢰군을 내세워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 세계최강의 강군과 맞서보겠다는것이야말로 돌부처도 포복절도할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복침전쟁광기를 고취하면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외세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그들의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고있는 극악한 대결광신자, 인권유린범죄자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며 만고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주체 106 (2017) 년 8월 14일 평 양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뛴다고 한다.

최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련이은 성공에 흥분백산하여 불맛은 송아지처럼 날뛴며 반공화국군사전략을 공격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분별없이 헤뎀 비교있다. 공화국의 련이은 패저에 넋을 잃은 미국도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있는 때에 남조선의 군부가 공화국의 전쟁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보복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작전》에 중심을 둔 《공격위주의 작전개념》을 만든다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과의 대화는 압도적인 국방력이 안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떠들면서 국방전략의 기본목표를 《한국형3축타격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여기서도 북의 로켓를 발사직전에 탐지하고 타격한다. 《킬 체인》이 기본이라고 떠들어왔다.

그런데 북의 2차에 걸치는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흥망이가 빠져 《킬 체인》이 어디까지나 《방어위주의 작전개념》이라고 떠들면서 그것들 《대량응징보복작전》에 중심을 둔 《공격위주의 작전개념》으로 수정하기로 한것이다.

이를 위해 남조선군부세력들은 미국과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탄두중량을 1t이상으로 늘이고 도이힐란드산 공중대지상미사일인 《타우루스》를 추가

남 잡 이 가 제 잡 이 된다

도입하려 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자체로 《지하시설파괴탄》을 개발하며 이미 개발완료된 《현무-2C》탄도미사일을 올해안에 실전배비하는 등 필요한 전력화보에 열을 올리고있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앞에 미국도 용빼는수가

없어 《군사적선택》을 슬그머니 거두고 《외교적해법》을 내들고 있는 판국에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공격위주의 작전개념》이란 가스롭고 무모한 객기가 아닐수 없다.

따지고보면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한 군사적동수권을 빼앗기고 아무런 실련도 가지지 못하고있는 한갓 하수인, 복침전쟁의 돌격대에 불과하다. 이런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군사전략》이니, 《군사작전》이니

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군사작전안》이라는것들이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미국의 복침전쟁계획에 철저히 복종되고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남조선군부세력의 이번 《대북군사작전》수정놀음도 식민지고용병들을 복침전쟁의 값싼 대포밥으로 썩먹으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의 산물이다. 세계적인 핵강국, 로켓트맹주국인 공화국의 군력은 송사리에 불과한 한갓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따위가 아니라 세계

에서 제노라 하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상대로 세대와 세기를 이어 축적해온 정의를 보검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그 무슨 《참수작전》이니, 《대북군사적대응안》들이니 뭐니 하며 썩대우에 오른 민중이마냥 객기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위력하고 다종화된 지상, 해상, 공중무기체계를 완벽히 갖춘 타격력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남잡이가 제잡이된다고 최후멸망에 직면하여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상전의 가련한 처지도 모르고 같이 헤뎀다가는 비참한 종말만을 고향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